

환경유감



천정락

최근에 “모든 것은 흙 속에 있다”(저자 이영문)라는 책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저자는 경남 하동에서 농기계 수리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에 너무 잦은 농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땅과 기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농기계들은 일본의 화산암 토양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부드러운 땅에는 잘 맞지 않아 고장이 잦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한 저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의문을

약력 : •92~96 보람은행 전산부장 •96~97 보람은행 석관동 지점장 •97~98 보람은행 역삼동 지점장 •98 보람은행 인재개발 부장 •현재 하나은행 인력지원 부장

갖게 된다. 예전 우리의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영농 방법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 천석군, 만석군의 농사에 서도 소수의 사람으로 해결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의 농사는 많은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외적인 도움없이 농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예전에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비료 농약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지었다. 이런 점을 연구하고 예전의 농사법을 따라하기 위해 저자는 10여년 전부터 저자 나름의 독특한 농사법을 만들어 갔다.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리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풀이 나면 벼와 적당히 경쟁하도록 했다. 풀을 뽑아 풀위에 놓으면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또는 주위에 무궁화를 심어두면 진딧물이 기생하면서 벼 병충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된다고 한다. 조상들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벼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 흔히 수확이 줄게되지 않나 걱정하게 된다. 비료를 주게 되면 벼 뿌리가 깊게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벼의 자생력이 약하게 되어 바람에 약하게 되고 병충해에도 약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없이 자람 벼는 스스로 살기 위하여 뿌리를 땅 깊이 내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게 된다. 풀과 적당히 경쟁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농법을 저자는 “태평농법”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다. 요즘 유기농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보다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훨씬 앞선 농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농사를 태평스럽게 한다고 이름붙인 “태평농법”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땅을 오염시키지도 않는다. 논을 갈지도 않는다. 흙은 스스로 숨쉬면서 토양을 보전한다. 가장 자연적인 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의 지혜는 부정하고 살펴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외국에서 들어온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것을 파괴하고 무조건 외국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왔다. 우리 토양에 맞는지 여부는 차지하고 숭배하고 사용해 왔다. 그 결과 맑은 물은 오염되어 이제는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흔치 않다. 비료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땅은 양분을 잃어가고 있다. 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는 더욱 많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땅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지하수는 오염되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조차 고갈되어가고 있다.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국토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어 있는데 과학적이라는 미명속에 농법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가 이렇게 오염되면 그것을 먹는 이땅의 사람들은 몸이 병들고 몸의 병은 아울러 마음의 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상은 이런 먹거리에 연유하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돈벌이라면 허용치를 예사로 초과하는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들이 있는한 우리는 서서히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은 나 혼자만 사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곳이다. 지금부터라도 태평농법이나 자연농법으로 우리의 농법을 바꾸어야 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복원하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은 흙속에 있다”의 저자 이영문은 오늘 우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 조상의 지혜를 살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예전같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